

안전제일주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전선분야 글로벌 회사로 도약

세계 선박·해양용 전선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JS전선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불안 등 대내외적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최고의 품질을 고집하는 JS전선의 끊임없는 R&D 투자뿐 아니라 난연, 무독, 내화 등 특수한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고려한 케이블 생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제일주의 경영철학이 있다.



매일 실시되는 안전점검과 그룹웨어를 통한 개시

안전에 있어서 가장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바로 전 사원으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매일 아침 그룹웨어를 통해 전 사원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반별로 게시하여 전일 있었던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소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자체 기준 양식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곳의 사진과 함께 원인과 대처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대책 등이 기술되어 해당 반에서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위험요인이 적절한 대책에 따라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그룹웨어에는 이처럼 위험요소에 대한 자체적인 대처방법이나 사고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부분도 함께 게시되어 그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 사원이 안전관리자가 되는 안전리더제

전 사원의 안전 참여를 이끌어 내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안전리더제는 기존에 관리감독자가 주도했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벗어나 지휘하고 하여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순번을 정하여 각 반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리더가 되어 아침 TBM 주제와 스트레칭, 위험예지훈련 주도, 간단한 아차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그날 작업에 있어 유의할 포인트를 확인하는 제도다. 타 회사의 일일안전관리자제도와 유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일일안전관리자가 하루 동안 안전관리를 맡는 것과 관리 대상이 전사원으로 확장된다. 반해, 안전리더제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자신이 속한 반에 한하여 안전관리를 맡는 것에 차이가 있다. 안전리더는 매일 이루어지는 일일점검 시 환경안전팀과 동등하여 자신이 속한 반에 전반적인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안전리더제는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를 주도하는 경우 형식에 차우치거나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리더가 충실히 안전스텝 역할을 해 나감으로써 반별 자율안전관리를 정착시키는데 큰 효과를 낼고 있다.

작업특성에 맞는 보호구 착용 유도

매년 3~4월 사이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품평회를 열어 근로자들이 이 작업에 필요한 보호장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작업별로 일률적으로 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불편을 야기하고 작업특성 상 보호장비가 실질적인 사용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품평회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자신에 하고 있는 작업에 맞는 보호장구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률을 높이고, 작업에 있어 실질적인 보호장구의 역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착용이 불편하거나 보호구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근로자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보호구 전시회를 침대에서 보다 편리하고 성능이 뛰어난 보호구를 빌려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보호구 착용에 대한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 환경안전팀 함영일 과장

안전이란 “신호등이 있고 파란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기본이고 삶의 철학이며, 가치관입니다. 안전은 자기와 가족과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반드시 표현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환경안전팀 김상오 과장

안전은 내가 먼저 시작한다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며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하기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 임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신념과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안전교육으로 개인의 안전의식을 확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환경안전팀 안진환 주임

안전의 주체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스스로의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10년, 20년을 매일같이 나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을 해왔다’고 자부하시는 분일지라도 그만큼의 세월을 위험 또한 함께 했음을 주지하여 안전에 대한 긴장의 끈을 풀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이 안전관리의 기본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환경안전팀 유정희 주임

안전의 원칙 중 “전원 참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안전에 대한 마인드 형성이 어려울뿐더러 안전관리에 효과 또한 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노조위원장 이철용

특히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둉쳐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임직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됨으로 ‘안전’ 이란 두 글자를 소중하게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별 무재해 운동과 연간 2,800건에 달하는 제안제도 활성화

지난해부터 반별 무재해 운동이 시작되어 곧 무재해 3배수를 달성하는 반이 탄생된다고 한다. 이 제도는 전사업장의 무재해 운동과 연계하여 각 반별로 자율안전관리 정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고안되었다. 반 소속 구성 근로자수가 다른 만큼 무재해 목표일 수도 천차만별, 반마다 무재해 기록판이 게시되어 있고, 실제로 무재해 달성 시 대표이사 명으로 무재해 인증서와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연간 2,800건에 달하는 제안제도도 활성화 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룹웨어를 통한 제안과 이를 매월 각 팀의 팀장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각 제안의 등급을 결정하고 매월 우수제안자를 선별하여 표창하고 인사고가 점수에도 반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2007년과 2008년,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금연 프로그램을 보건소와 함께 실시한 결과 80여명이 참여하여 67%의 높은 금연 성공률을 거두었다. 가족의 이름을 기재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가정통신문을 보내 가족에게 금연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근로자 당사자의 금연의지를 높이도록 한 후, 2개월간은 금연교육과 금연보조제 지급, 6개월 간 지속적인 일산화탄소 측정과 소변테스트를 통하여 관리, 6개월이 지나면 50만 원의 죽하금이 전달된다. 또한 각 근로자의 보건관리 기록을 전산화 하여 데이터 관리가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근로자 각 개인의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인근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이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병원비 할인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근로자 안전에 만전 기해

전선을 생산하는 업체로 회전체에 의한 말림이나 소음에 따른 청력장애 발생,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높으나 끊임없는 공정과 설비개선, 안전장치의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한 대에 천만원이 넘는 이지푸서의 도입, 턴테이블 설치, 회전체 덮개 설치, 방음룸 설치 등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근로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안전, 보건, 소방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전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안전한 작업장, 최고의 전선제조업체로 JS전선은 지속 성장할 것이다. ☺

안전제일주의의 경영철학

당사는 주력으로 생산하는 전선제품들은 유조선, 여객선, 해양플랜트, 잠수함, 원자력발전소 등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첨단 시설로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국가 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예방을 위해 친환경 안전특성을 강화한 난연, 무독, 내화, 내한, LOW SMOKE등의 전선을 지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의 특성상 전선을 생산하는 설비의 많은 부분이 회전체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호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여 현재는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자원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제일주의 원칙은 당사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경영철학입니다. 품질에는 테스트란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안전에는 테스트란 있을 수 없으니 선행 관리하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전력 및 통신케이블, 선박 해양용 케이블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은 물론 안전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시스템 개선,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 준호 환경안전팀 이사

